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 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b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0월 28일)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Kimchi'~ 찰칵, 자비심 '훈훈' 이웃을 위한 김치를 만드는 따뜻한 자비심 앞에 승속, 국적, 인종의 구분은 없었다. 한파가 몰아친 11월 2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은 따뜻한 자비심으로 가득했다. 조계사가 개최한 '자비의 김장 나누기'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사진 왼쪽서 두번째〉을 비롯한 불자 300여 명이 참석해 직접 김장 1만 포기를 담가 소외이웃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장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스님들과 함께 김장을 했다. 사진 속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과 외국인들이 해맑게 웃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청년 불교공간 全無… "포교 방향, 시설 우선을"

조계종 미래세대위 1주년 대화마당서 '한목소리'

미래세대 정책 · 지원 주제
불교 패널들 다수 참석해

신촌 등 청년 밀집지역에
불교 접할 시설 안 보여
"시설이 공동체 형성 도움"

신성민 · 윤호섭 기자

탈종교화로 인해 미래세대 포교가 모든 종교의 현안으로 떠오른 요즘, 불교계 청년포교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청년 밀집지역 종교시설 마련을 꼽았다. 청년들이 더 이상 사찰을 찾아오지 않는 현대사회에 사찰이 대학가 등 도심지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심산)는 11월 28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서 '미래세대 정책과 지원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출범 1주년 대화마당을 열었다. 이웃종교의 미래세대 지원정책을 알아보고,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대화마당에는 불교 패널로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김영섭 (사)자비신행회 사무처장,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 사무국장 효석 스님, 김동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불담기자단장 등이 참석했다.

'핫 플레이스' 동떨어진 불교

이 자리서 마가 스님은 노량진에 개원한 마음충전소 활동을 소개하면서도 이웃종교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호소했다. 마가 스님은 "인근 강남교회는 매일 1000명의 고시생들에게 아침밥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천주교는 정원을 갖춘 30평 건물을 매입해 청년쉼터인 '천주교 친구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10여 평 건물을 월세로 운영하는 마음충전소는 후원금과 자원봉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성의 위기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서강대 종교학과에 재학 중인 김동현 단장은 소위 청년들의 '핫 플레이스'인 신촌 인근 4대 종교시설 위치를 짚었다. 그에 따르면 창천교회는 신촌 중심지인 연세대 정문 맞은편에 위치하고, 연희동성당은 중심지는 아니지만 인근 대학생 주거 밀집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원불교 신촌교당 역시 중심지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높았다. 불교는 신촌 봉원사뿐인데 중심지와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일부러 버스를 타고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대표적 고시촌인 장동로타리서 청년식당을 운영하는 자비신행회 김영섭 사무처장의 비유가 눈길을 끈다.

"청년식당을 이용하는 한 친구가 떡을 잘 먹기에 좋아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떡을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먹어보니 맛있다고. 안 먹어봐서 그 맛을 몰랐다고 말이죠. 고시촌 청년들이 배식해주는 스님을 보고, 살면서 스님과 처음 대화해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불교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한 단면입니다."

청년과 호흡하는 이웃종교

그렇다면 이웃종교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을 어떻게 창출할까? 청년선교는 개신교가 선두주자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도시선교를 펼쳐온 미와십자가교회는 공연장, 전시회장, 연극연습실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아이'를 지난 2014년 2월 대학로에 오픈했다. '상상을 넘어 표현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문화예술을 시작하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무대를 열 수 있는 실험실과 같은 공간이다.

왕십리에는 홍대클럽 분위기의 기독교 문화공간인 'Dear Dancing David 클럽(춤추는 다윗아 클럽, 이하 DDD클럽)'이 있다. DDD클럽은 문화공연(콘서트, 뮤지컬, 연극, 파티, 예배)에 목마른 한국 기독교 젊은이들을 위해 대관을 해주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발생된 이익은 클럽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캄보디아 선교 기금으로 활용된다.

공간이 주는 포교가능성

대화마당에서 포교전문가들은 청년밀집지역 불교공간 건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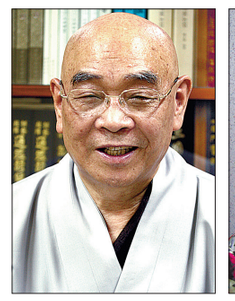
김영섭 사무처장은 "경험에 비추어볼 때 좋은 프로그램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이 공간 마련이다.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램도 사람이 모일 공간이 없으면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조언했다. 김 사무처장의 발언에 마가 스님도 엄지를 치켜세웠다.

불교계가 청년밀집지역에 불교공간을 운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많은 사찰들이 카페 등을 운영하지만 대부분 청년밀집지역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상 부산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앞 문화카페 '쿠무다'와 대한불교진흥원이 서강대 후문 인근에 운영 중인 문화공간 '숨도'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숨도에서 동문들과 명상시간을 보내는 서강대 불교동아리 '혜명회' 김경록 회장은 "불교공간이 주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학생들이 불교콘텐츠를 중심으로 활동하려 해도 공간을 구하지 못해 무산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여러 공간을 통해 청년들이 불교를 접할 기회가 늘어난다면 불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제 30회 포교대상 대상
혜거스님 · 대원성 보살

조계종 포교원 오는 12월 19일 시상식


혜거 스님


대원성 보살

제30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에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과 부산연꽃모임 회장 대원성 보살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28일 2018년 제30회 포교대상 대상 수상자로 혜거 스님(금강선원 선원장), 대원성 보살(이정옥, 부산 연꽃모임 회장)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공로상(총무원장상)에는 남성사 주지 정우 스님,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곽명희 前포교사단장, (사)자비신행회가 선정됐다.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법룡사 정현 스님(법룡사), 사단법인 동련 이사 탄경 스님, 한의사불자연합회 정주화 회장, 조명하 백천문화재단 대표, 충북파라미타청소년 연합회, 월정사 출가학교가 선정됐다.

대상(종정상) 수상자로 선정된 혜거 스님은 1988년에 서울 강남에 금강선원을 개원하여 도심 포교의 중심선원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28년간 경전반을 상설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교리를 강의하였으며 전국금강경강송대회를 개최하여 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을 불자들에게 전파하였고, 마음 치유와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청소년의 인성프로그램 개발에 이바지하고 있다.

포교원 측은 "명상지도자 양성에도 기여함은 물론 경전 강의 교재제작, 학술저서 집필, 등 약 100여 종의 저서를 발간하여 신도교육과 교육불사, 지역사회 포교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밝혔다.

대원성 보살은 부산수행단체 '연꽃모임'을 창립하여 42년간 회장을 맡아 불자들의 신행과 사경 및 사찰순례, 지역사찰 봉사, 선원대중공양 등 지역 불자들과 주민들의 신행도우미 역할을 맡아 오고 있다.

또 중앙승가대, 동국대학교, 동곡학원 선화여고 등에 발전기금, 부산불교방송 신사옥건립기금을 보시했으며 '보현봉사회' '내생장학회'를 조직하여 재활원 봉사와 장학사업 등 지역 불법홍포에 기여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제30회 포교대상 시상식'을 12월 1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도 ·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I 2019년 3월 8일 출발
225 만원

창립30주년특별기획
실크로드·돈황 10일
출발일 I 2019년 4월~10월 (매월출발)
239 만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푼힐 트레킹 9일
출발일 I 2019년 3월~4월 중 출발
259 만원~

· 포함사항 - [노옵션] 왕복항공료(유루세, 공항세 포함), 식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관광지 입장료, 팁경비 포함
· 불포함사항 - 개인적 성격의 지출, 짐 포터·룸메이드 팁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모집인원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02-720-9600
마음여행 Since.1989 실크로드여행사
상세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umtour.com